

社 說

책임성과 탐구욕은 대학의 생명
— 92학년도 신입생을 맞이하여

4월의 대학은 싱그럽다. 새로운 입주자들, 신선한 감각과 왕성한 학구열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신입생들이 대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는 4천여명의 새로운 경희가족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의 참신한 모습과 학문에 불타는 정열은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 학년은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 학년은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 학년은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에 들어오기 이전의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교육을 위한 충실한 준비단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학교육과 고등학교 생활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대학에서는 상식으로 통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응과정은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신입생들은 이러한 적응과정을 교수, 학교당국, 선배들과의 유기적인 유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입생들은 거의 처음으로 자율적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폭넓은 자율이 보장되어 있고, 또한 자율적 생활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학문적 활동 자체가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서 성립되고 전개되므로, 대학에서의 학과생활과 학문연구 등 대학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자율적 활동은 대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다. 자율적 활동이 없는 대학생활은 학문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율적 활동에 앞서서 진정한 자율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아야 한다. 자율은 결코 방종이 아니며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고 자율을 통해 획득되는 권리에선 의무가 수반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한 다음에야 비로소 참된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자율이 최대한으로 배제되는 것은 자율을 함양할 자질과 인격이 갖추어졌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생명은 학문적 활동에 있다. 학문을 떠나서 대학은 존재의 의미가 없고 대학이 남아 있을 여지도 없다. 학문은 대학을 존재하게 하는 절대적인 근거인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은 학문과 대학의 관계, 대학성과 학문의 관계, 곧 대학은 학문을 떠나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며 대학생은 학문연구와 유리되어서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대학의 상식'을 빨리 터득하기 바란다. 이 점을 빨리 터득하면 그럴수록 의미있는 대학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입학할 자격은 학문에 대한 왕성한 탐구욕과 정열이라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학문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생활에는 남만도 가득하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다. 어떤 남만이 신입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대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자율적 생활도, 학문연구도, 남만의 추구도 일차적으로 대학생의 전적인 책임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또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신입생이 알아야 할 우리의 정신

교훈 -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40여년전 이 땅에 민주라는 말이 생소했을 때부터 경희는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았다. 이는 오늘날에도 전세계 인류가 지향하는 바이며 당연한 목표이며 경희의 해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교훈은 교시인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하여 경희가 추구하는 교육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도 어김없이 미래를 향한 경희의 의지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교시 -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의 교시는 '문화세계의 창조'이다. 이는 우리 경희가 미래 문명사회의 패권을 예견하고 그 대안으로 올바른 '문화세계'로 설정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교시를 '문화세계의 창조'로 정했던 것이다.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양의 물질문명 그 어느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할뿐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조화없이는 완벽한 '인간중심'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는 까닭에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간의 생존과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종합 문명사회의 지향점이다. 이는 경희가 창립 초기부터 역사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역사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자임했기에 설정할 수 있었던 원대한 포부이자 빛나는 예지의 소산이다.

반세기 이어온 경희의 脈

자아실현 통한 밝은 사회 창조를

다. 동용문을 거쳐 대학본관을 향했을 때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이러한 정신을 나타내는 교시탑이다.

교 표

경희의 교표는 1951년 제정한 것으로 민주적인 유엔정신을 본받아 평화를 상징한 올리브나무

하기 위해 경희인이 가져야 할 정신을 가리킨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창조적 정신으로 극복하고,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두려워 하지 않고 커다란 포부로 이겨내는 것이 경희인의 정신이다. '의지는 역경을 뚫고 이상을 기적에 남는다'는 면면히 내려온 경희인의 투지와 '생각하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는 힘찬 기상인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적인 협동은 개인의 이익

에도 미래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경희 특유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 전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껏 일함으로써 문화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일깨워준다.

교화 - 묵려

교화 묵려는 1970년 학장장회 의에서 만장일치로 지정, 발표되었다. 묵려는 첫째 백색의 빛깔로 순결, 무구, 정직한 마음을 상징하며, 둘째 꽃이 하늘을 향해 피는 것은 높은 차원의 이상을 추구하는 경희인의 기상을 상징한다.

셋째 짙은 향기로움은 인격을 감화하는 품격을 뜻하며 넷째 봄날 가장 먼저 피는 것은 전진하는 경희의 선구자적 기개를 나타낸다.

또한 묵려의 군계함은 단결과 협동을 나타내며, 에메랄드 빛의 깊은 푸름과 영원함, 그리고 완전함을 상징한다. 널리 애창되는 가곡 '묵려'는 이러한 묵려의 배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를 한 것이다.

교 가

교가는 1953년도에 본교의 설립자이자 현재 총장인 조영식 박사 작사하고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 2절이며 후렴으로 찍을 짓고 있는데 여기

치자금성 기부금을 여타 재발기 업들도 참여했을 가능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그 돈은 천만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으로 정치자금성의 돈을 받았던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만 대통령 자격으로 받았던 면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국가권력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없었더라도 그 제공된 돈

는 잠재된 국민의 힘의 표출이 옛날집시법들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제해 왔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민주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현 시점에서 실정법의 문제에 앞서 또다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탄압하려는 정부의 비 '공명'한 태도가 반영된다.

또한 사회구조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서 민주주의와 민간 주도적으로 바뀌어 나감에 따라 우리의 이러한 법률들도 시민운동, 민간주도부분을 제약하는 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민간단체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사회전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올바른 시민운동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등 개개의 기본권들이 활성화되고 보장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치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김기영

(대학원석사3기·법학)

법을 재단하는 권력의 잣대

—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의 적용에 드러난 문제점



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이나 환경의 미숙으로 그 법이 약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국민의 자발적 시민운동을 통해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약용된다면 이 또한 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선협의 모금활동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이라고 하여 법의 테두리를 지켜달라 내무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차고 넘칠 정도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조직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분쇄하는 정부의 의식스러운 법운용태도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금지법은 의외,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종교단체의 헌금과 학교기성회의 경비 각출들을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을 구충하는데 필요한 금품, 국방기제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들은 내부부장관, 도지사 등의 허가를 얻어 모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부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회)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로한 모금활동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공선협은 재원확보방식을 공여자책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없는 회원모금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실정법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전에 국민의 자발적 시민운동을 법에 위

모집금지법 위반이라는 구실로 은행계좌인 계좌 내의 수사에 나서 시민운동이나 재야운동들을 탄압하는데 악용 된다.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에 의의 기부금품을 금지하는데 있어 모금금지법 위반이라는 구실로

정권 법악용 공선협 모금운동 금지시켜
자발적 시민운동 제약 법률 개정 시급

반한다고 국민적 모금활동을 제약하면서, 지난해 정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에 따라 관변단체에게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합당한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해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적 모금을 해서 민간 주도의 공명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변이나 국유단체라는 비관을 받는 32개의 단체에 소위 '공명선거'를 위해 대량의 자금을 살포하는 것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다.

집권세력이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아온 국민들은 이제 또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운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공명선거 실현국민단체인' (공민련)이 여당후보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을 보고도 한번 불신의 눈으로 바라 보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젠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전교조의 성금모금에 대해 불법단체의 기부금품을 한단계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이 강요에 의한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또 한가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정주영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주창에 대해 검찰측은 그 돈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해, 정치자금 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사했다. 하지만 연말이나 추석때의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분으로 한해에 3백억원 규모의 돈이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다면 그것이 자선자금이나 자발적인 성금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또한 정세상의 경우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금규모가 크고 비공개적 형식으로 제공된 점이 반대급부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과거의 한계로 볼 때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정

은 뇌물성이 강하며,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부금이라면 공개적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비민주 정권이 가장 두려워 하



출사의 넘(念)으로 경희 도약 발판되길
— 신입 학·처장들에게 바란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동안 잠시 한가했던 캠퍼스 곳곳에 바쁜 걸음이 가득할 것이다. 늘 새봄을 맞이하는 새순처럼 우리의 대학교 신입생을 맞아 청정함을 더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들어오는 봄이지만, 캠퍼스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이다.

우리 '경희'도 연초를 맞아 몇몇 부서의 장들을 교체하고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하는 등 행보를 재촉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문리대학장을 비롯해 학장급 4명과 처장급 9명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직원의 자리바꿈도 예년의 수준을 상회한다. 자연 '이번 인사이동'을 두고 기대를 걸게 된다.

학교 행정은 자율적인 목표 달성의 기업을 아닌 탓에 자칫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현상유지는 관리행정이 빠지기 쉬운 환경인 것이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를 지나 다시 한번 '성장의 압축혁명'을 재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러한 안이함은 용납될 것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이번 인사에서 중임을 맡은 학처장 여러분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왜냐하면 보직교수들이 현실적으로 부담된 현안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공간문제와 제반시설의 보완문제,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의 자질향상 및 강사의존율문제, 신입생모집시의 전후기 분할, 본고사 실시 경우 과목 선정 등 대학방안과 학내외학내외가 조성된 복잡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제고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졸업생의 취업

율이나 신입생의 수준, 각종 경기 성적 등 경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일은 곧 학교행정의 내실과 순환적 관계를 갖게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일이다. 광고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처럼 광고판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의욕 과잉이 가져올 폐해도 지적하고 싶다. 새로운 아이러니나 제도의 도입이 실상 우리의 준비 상태나 여건과 맞지 않았을 때 자칫 난비의 차원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선심의로 등장하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수와 학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책의 시행과 계획의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책무를 보직교수들만의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새마을운동식의 노령운동으로 학교의 발전을 일구는 시기는 지나갔으며, 파란만장한 투쟁과 재원의 확보없는 제대로 필연이 없다. 재단의 지원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보직교수들의 사려(風氣)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학생들의 지원과 충고도 필수적이다. 매년 비판과 질책거리를 구분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2년의 보직 임기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 긴 기간은 아니다. 부디 본인이 던진 출사의 넘(念)에 걸맞은 포부를 간직하고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 92년 신입생을 맞아 신입생의 발돋움만큼이나 활기찬 학사행정을 기대해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경희가 다시 한번 도약의 큰 발자국을 할 때다.

세기로 꿈을 펴는 젊음

세화기, 힘찬 출발을 기원합니다.

선발된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 일본과전 —
우리집같은 분위기에 두려움은 어디로가 사라졌습니다.



이준수 (신선전지 전문기술인) : 우주의 첫 번째 지는 91년 8월에 독신모전 지(전문기술)로 일본에 파견되어 생활한 후(이) 생활습관, 문화와 제도 등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동경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독신파견 지역전문가제도

동경에 발을 내딛기는 했으나 내가 아는 일본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많은 보고 들어온 이웃의 나라였지만 나에게겐 저 멀리 유럽이나 미주대륙에 있는 커다란 나라를처럼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나에게엔 일본을 보고 연구하고 마음껏 세계를 느낄 수 있는 1년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 자유로움은 낯설음을 설레임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민총생산 2위의 나라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 한 구석의 섬나라가 아님을 한눈으로도 알 수 있었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불리우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동경시 — 레저, 스포츠, 해외여행 등을 통해 삶 자체를 즐기려는 여유로움 — 4,700여종의 신문과 15,000여종의 잡지 —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일본은 짧은 시간안에 많은 것을 이루어놓았고 또한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스스로가 정보의 수신자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어 그 정보를 발산하는 정보의 발신자라는 자부심을 갖고있는 그들은 이제 '일등국민'이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얼마전 홋카이도 여행을 통해 한 일본인을 만났다. 여덟명이 함께 쓴 선실에서 만나

몇일을 같이 지낸 그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조용히 일어나 선실에서 함께 사용하는 컵을 씻어오곤 했다. 너무도 당연히 컵을 씻는 그의 모습을 오히려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가슴속에서는 지하철에서 수첩을 꺼내 깨알같은 글씨로 하루를 계획하고 살 물건을 정리하던 일본 주부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설레임만 가득한 미국의 낯선 방문자일 수는 없었다. 동경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나의 가슴이 마치 큰 세계를 향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들과 세계안에 우뚝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삼성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 키우고 기술의 국제화, 제품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사람의 국제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신파견지역전문가제도 — 업무없이 자유롭게 현지생활과 지식만을 쌓아 자연스레 해당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이 제도는 매년 400명씩의 3년차 신입사원이 선발되어 독신파견되고 있으며 3년후에는 약 2,000명의 지역전문가가 양성된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